

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 (2013년 4/4분기)

2014. 2. 13.

해 외 경 제 연 구 소 산 업 투 자 조 사 실

해 외 투 자 분 석 팀

목 차

요 약	Ⅱ
Ⅰ. 개 요	1
Ⅱ. 지역별 동향	2
Ⅲ. 업종별 동향	6
Ⅳ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9
Ⅴ. 기 타	10

< 요약 >

- 2013. 4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7.3% 감소, 전분기 대비 6.2% 증가한 63.8억 달러 시현

【 지역별 】

- 주요 지역 중 아시아, 유럽, 대양주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, 북미는 감소
 - 대양주 89.4% 대폭 증가 및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6.6%, 39.7% 증가를 보인 반면, 북미는 54.1% 감소
 - ※ 아시아(32.9억 달러), 유럽(9.7억 달러), 북미(8.1억 달러), 대양주(6.2억 달러)

【 업종별 】

- 주요 업종인 제조업의 증가를 비롯, 건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증가를 보인 반면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광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감소세
 - 제조업은 46.8% 증가한 반면 광업 투자는 38.6% 감소하였으며, 비중은 각각 43.2%, 19.0%임
 - 광업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(7.3억 달러)가 전년동기 대비 47.0% 감소
 - ※ 제조업(27.5억 달러), 광업(12.1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6.6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4.0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3.9억 달러)

【투자기업규모별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9.4% 감소로 그 비중이 전년동기 84.8%에서 82.9%로 축소

【투자규모별/지분율별】

□ 1억 달러 초과の大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금분기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34.6%를 차지하여 전년의 42.6% 대비 감소

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3.3%에서 금분기 66.1%로 감소

I. 개 요

- 2013. 4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68.8억 달러 대비 7.3% 감소, 전분기 60.1억 달러 대비 6.2% 증가한 63.8억 달러 기록,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의 608개에서 22.7% 증가, 전분기의 682개에서 9.4% 증가한 746개를 시현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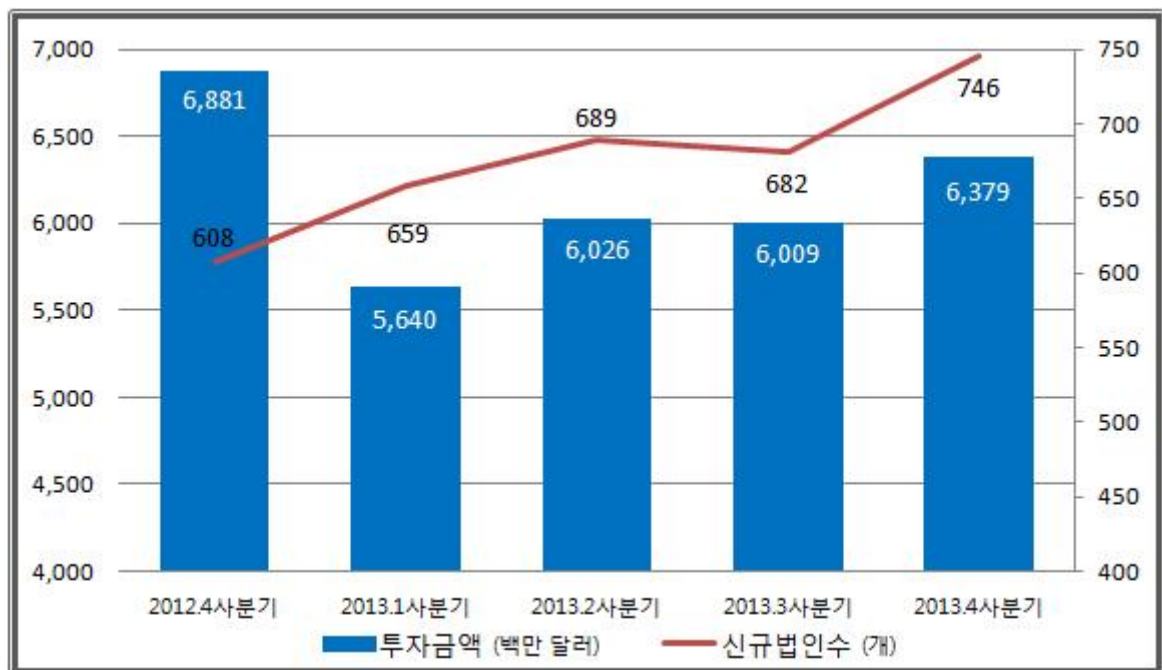
구 분	2011		2012		2012. 4/4		2013. 3/4		2013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	27,591	2,757	25,119	2,521	6,881	608	6,009	682	6,379	746
(증감율)	12.8%	-4.4%	-9.0%	-8.6%	-11.5%	-0.3%	1.8%	0.4%	-7.3%	22.7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(51.5%), 유럽(15.2%), 북미(12.6%), 대양주(9.7%) 순으로 아시아는 2011. 2/4분기 이래로 최대투자 지역이며, 업종별로는 제조업(43.2%), 광업(19.0%), 금융 및 보험업(10.4%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6.3%)의 순으로 2013. 1/4분기 이래로 제조업이 지속 1위 차지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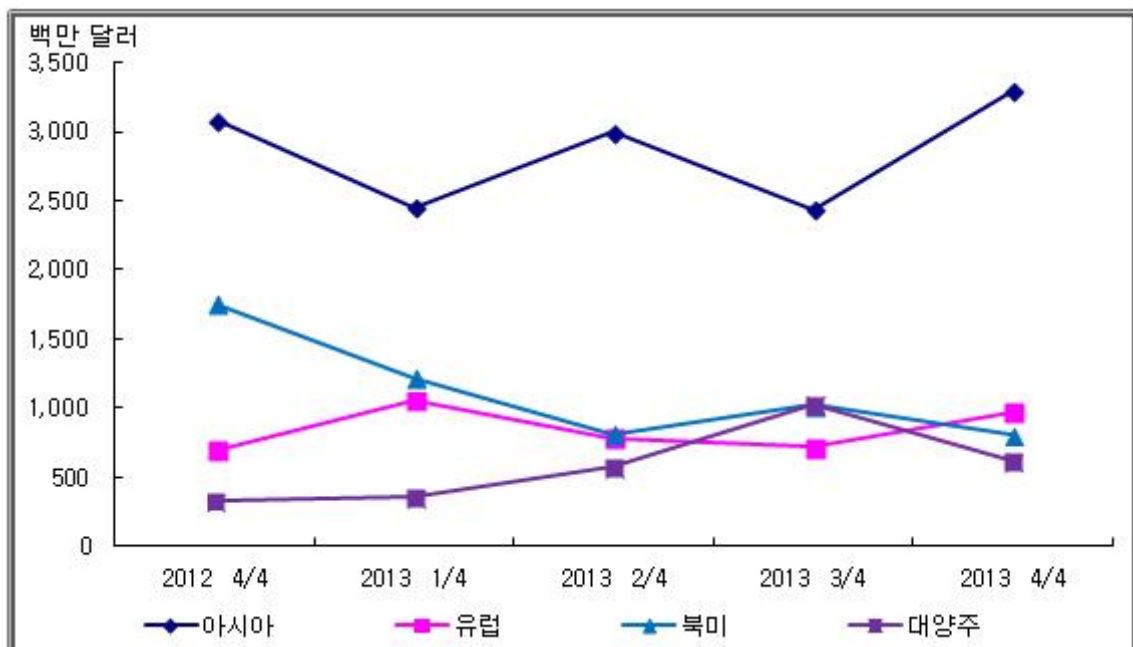

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중국(15.4), 미국(6.3), 호주(5.7), 홍콩(3.2), 베트남(3.1)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투자자(억 달러) :
A사 (8.8), B사 (3.5), C사 (3.0), D사 (2.9), E사 (2.3)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현지법인(억 달러) :
A사 중국 현지법인 (7.0)
C사 인도 현지법인 (2.1)
D사 호주 현지법인 (1.6)
F사 독일 현지법인 (1.6)
G사 미국 현지법인 (1.5)

II. 지역별 동향

-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이 전년동기 대비 6.6% 증가한 가운데, 대양주 지역은 89.4%의 대폭 증가를 보였고, 북미는 54.1%의 감소를 기록함.

<그림 2>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51.5%, 유럽 15.2%, 북미 12.6% 순이며,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79.4% 차지
 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유럽, 북미가 각각 44.8%, 10.1%, 25.5%의 투자 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0.4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15.4억 달러), 홍콩(3.2억 달러), 유럽은 네덜란드(2.1억 달러), 북미는 미국(6.3억 달러), 대양주는 오스트레일리아(5.7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22.8억 달러)과 금융 및 보험업(2.5억 달러), 유럽은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2.8억 달러)과 제조업(2.7억 달러), 북미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(1.8억 달러)과 도매 및 소매업(1.4억 달러), 대양주는 광업(4.7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3		2012. 4/4		2013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11,218	1,849	10,877	1,708	11,172	1,908	3,084	417	3,288	530
(비중)	40.7%	67.1%	43.3%	67.8%	46.4%	68.7%	44.8%	68.6%	51.5%	71.0%
(증감율)	10.6%	-4.1%	-3.0%	-7.6%	2.7%	11.7%	0.7%	-1.0%	6.6%	27.1%
유럽	4,355	157	3,405	125	3,524	143	693	34	968	32
(비중)	15.8%	5.7%	13.6%	5.0%	14.6%	5.2%	10.1%	5.6%	15.2%	4.3%
(증감율)	-29.1%	1.3%	-21.8%	-20.4%	3.5%	14.4%	-59.8%	-12.8%	39.7%	-5.9%
북미	7,300	469	5,051	477	3,867	496	1,755	110	806	134
(비중)	26.5%	17.0%	20.1%	18.9%	16.1%	17.9%	25.5%	18.1%	12.6%	18.0%
(증감율)	57.7%	-14.7%	-30.8%	1.7%	-23.4%	4.0%	0.3%	18.3%	-54.1%	21.8%
대양주	1,542	76	2,348	53	2,589	74	328	5	622	8
(비중)	5.6%	2.8%	9.3%	2.1%	10.8%	2.7%	4.8%	0.8%	9.7%	1.1%
(증감율)	98.1%	5.6%	52.3%	-30.3%	10.3%	39.6%	-16.0%	-72.2%	89.4%	60.0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1. 아시아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6.6% 증가한 32.9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27.1% 증가한 530개 기록
- 국가별로는 중국(15.4억 달러, 비중 46.8%), 홍콩(3.2억 달러), 베트남(3.1억 달러), 인도(2.9억 달러), 싱가포르(1.6억 달러) 순
 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10년 36.1%, '11년 32.9%, '12년 33.2%, '13년 2/4분기 50.3%, '13년 3/4분기 42.9%

- 업종별로 제조업(22.8억 달러, 비중 69.2%), 금융 및 보험업(2.5억 달러), 광업(2.1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5억 달러) 순
 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54.9%, '11년 52.2%, '12년 47.8%, '13년 2/4분기 69.4%, '13년 3/4분기 67.4%
- 주요 투자 사업
 - A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7.0억 달러
 - C사의 인도 제조업 투자 : 2.1억 달러
 - E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1.4억 달러

2. 유럽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9.7% 증가한 9.7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5.9% 감소한 32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네덜란드(2.1억 달러, 비중 22.2%), 독일(1.9억 달러, 비중 20.0%), 벨기에(1.7억 달러), 저지(1.5억 달러), 러시아(0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2.8억 달러, 비중 28.7%), 제조업(2.7억 달러, 비중 27.5%), 금융 및 보험업(1.6억 달러), 광업(0.7억 달러) 순
 - 유럽지역 전문, 과학, 기술 및 서비스업 투자비중 : '10년 6.2%, '11년 11.5%, '12년 44.0%, '13년 2/4분기 0.2%, '13년 3/4분기 7.6%
 - 유럽지역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13.3%, '11년 30.0%, '12년 24.8%, '13년 2/4분기 14.2%, '13년 3/4분기 35.0%
- 주요 투자 사업
 - F사의 독일 제조업 투자 : 1.6억 달러
 - H사의 벨기에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 : 1.4억 달러
 - A사의 네덜란드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 : 1.3억 달러

3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54.1% 감소한 8.1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21.8% 증가한 134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6.3억 달러, 비중 77.9%), 캐나다(1.8억 달러) 순
-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(1.8억 달러, 비중 22.2%), 도매 및 소매업(1.4억

- 달러, 비중 17.7%), 제조업과 광업(각각 1.3억 달러), 건설업(0.8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북미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비중 : '10년 2.0%, '11년 0.5%, '12년 0.4%, '13. 2/4분기 14.3%, '13. 3/4분기 2.5%
- 북미 도매 및 소매업 투자비중 : '10년 9.0%, '11년 19.5%, '12년 7.9%, '13년 2/4분기 26.8%, '13년 3/4분기 6.8%

- 주요 투자 사업

- G사의 미국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: 1.5억 달러
- E사의 미국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0.8억 달러
- I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: 0.7억 달러

4. 대양주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89.4% 증가한 6.2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60.0% 증가한 8개 기록
- 국가별로는 호주(5.7억 달러, 비중 91.8%), 뉴질랜드(0.3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광업(4.7억 달러, 비중 75.4%), 금융 및 보험업(1.3억 달러, 비중 20.8%) 순
- 대양주 광업 투자비중 : '10년 51.6%, '11년 82.0%, '12년 91.6%, '13년 2/4분기 81.2%, '13년 3/4분기 46.0%
- 대양주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10년 22.4%, '11년 1.6%, '12년 2.5%, '13년 2/4분기 0.3%, '13년 3/4분기 4.8%

- 주요 투자 사업

- D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1.6억 달러
- B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1.3억 달러
- B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0.8억 달러

5. 기타 지역

- 전년동기 대비 투자액 감소율은 중동 12.4%, 중남미 30.7%, 아프리카 54.5%로 모두 감소세를 보임.

- 주요 투자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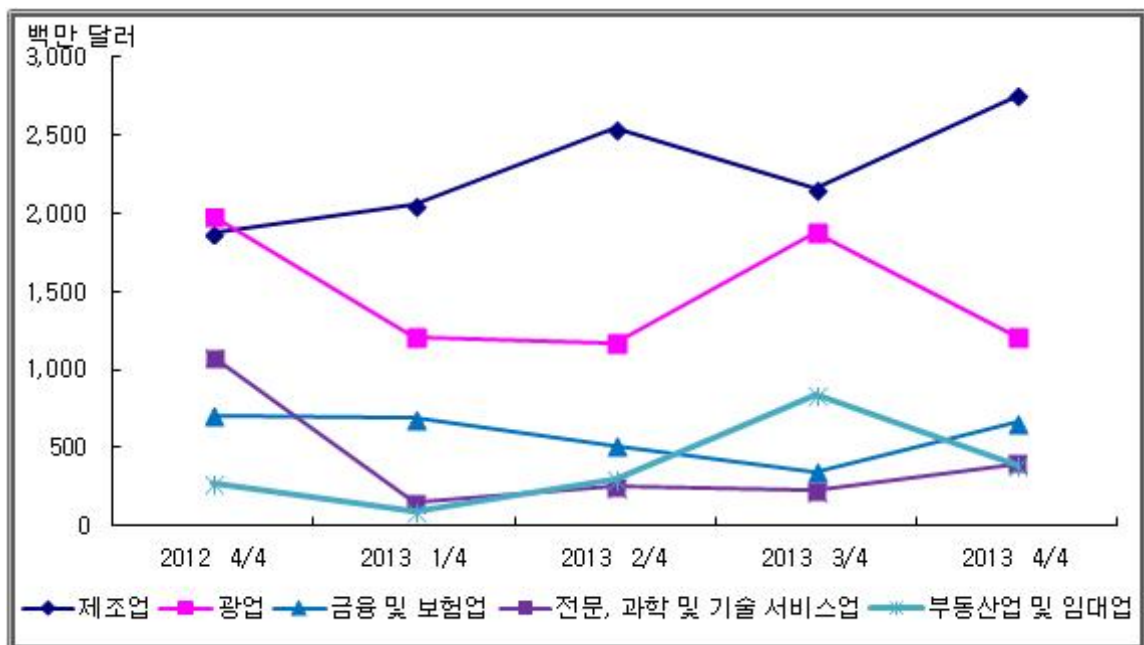
- J사 멕시코 광업 투자 : 1.4억 달러
- K사 페루 광업 투자 : 0.5억 달러
- J사 마다가스카르 광업 투자 : 0.5억 달러

Ⅲ. 업종별 동향

- 전년동기 대비 건설업 118.1%, 제조업 46.8%,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.0%, 도매 및 소매업 3.6% 증가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-76.1%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-63.0%, 광업 -38.6%, 운수업 -35.7%, 금융 및 보험업 -6.0% 등은 감소

<그림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인 43.2%, 광업 19.0%, 금융 및 보험업 10.4%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.3%, 부동산업 및 임대업 6.1% 순
 - 제조업은 중국(13.9억 달러), 인도(2.8억 달러), 독일과 베트남(각각 1.9억 달러) 순, 광업은 호주(4.4억 달러), 멕시코(1.4억 달러), 캐나다(1.2억 달러), 페루(1.1억 달러), 미얀마와 말레이시아(각각 0.7억 달러) 순
 -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29.6%, '11년 32.6%, '12년 31.5%, '13년 2/4분기 42.2%, '13년 3/4분기 35.9%
 - 광업 투자비중 : '10년 30.0%, '11년 27.5%, '12년 29.0%, '13년 2/4분기 19.3%, '13년 3/4분기 31.3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3		2012. 4/4		2013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제조업	8,987	1,058	7,923	893	9,502	1,078	1,876	205	2,754	288
(비중)	32.6%	38.4%	31.5%	35.4%	39.5%	38.8%	27.3%	33.7%	43.2%	38.6%
(증감율)	24.1%	-5.2%	-11.8%	-15.6%	19.9%	20.7%	-31.0%	-12.0%	46.8%	40.5%
광업	7,585	48	7,273	40	5,459	21	1,973	8	1,211	5
(비중)	27.5%	1.7%	29.0%	1.6%	22.7%	0.8%	28.7%	1.3%	19.0%	0.7%
(증감율)	3.3%	-9.4%	-4.1%	-16.7%	-24.9%	-47.5%	-2.5%	-42.9%	-38.6%	-37.5%
금융 및 보험업	3,400	70	1,390	44	2,219	54	706	15	664	18
(비중)	12.3%	2.5%	5.5%	1.7%	9.2%	1.9%	10.3%	2.5%	10.4%	2.4%
(증감율)	3.9%	11.1%	-59.1%	-37.1%	59.6%	22.7%	-31.7%	7.1%	-6.0%	20.0%
전통·화학및기타서비스업	2,381	146	2,961	142	1,037	165	1,084	37	401	46
(비중)	8.6%	5.3%	11.8%	5.6%	4.3%	5.9%	15.7%	6.1%	6.3%	6.2%
(증감율)	46.8%	-0.7%	24.4%	-2.7%	-65.0%	16.2%	47.6%	23.3%	-63.0%	24.3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1. 제조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27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6.8% 증가, 신규법인수는 40.5% 증가한 288개 기록
 -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의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4.5%, 211.8% 투자 증가가 주요인
- 국가별로 중국(13.9억 달러, 비중 50.3%), 인도(2.8억 달러), 독일과 베트남(각각 1.9억 달러) 순으로, 아시아(22.8억 달러)와 유럽(2.7억 달러) 지역이 각각 82.6%, 9.6% 차지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76.9%, '11년 65.2%, '12년 65.6%, '13년 2/4분기 81.8%, '13년 3/4분기 76.1%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유럽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11.3%, '11년 14.5%, '12년 10.6%, '13년 2/4분기 4.3%, '13년 3/4분기 11.7%
- 투자금액 비중은 43.2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8.6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9.6백만 달러로 업종 평균치(8.6백만 달러)를 상회함
- 세부업종별로는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13.0억 달러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.4억 달러), 식료품 제조업(2.0억 달러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의약품 제외(1.5억 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1.4억 달러)의 순

2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12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.6% 감소, 신규법인수는 37.5% 감소한 5개 기록
 - 에너지 공기업 투자가 7.3억 달러로 전년동기 13.8억 달러 대비 47.0% 감소
- 국가별로는 호주(4.4억 달러), 멕시코(1.4억 달러), 캐나다(1.2억 달러), 페루(1.1억 달러), 미얀마와 말레이시아(각각 0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대양주(4.7억) 및 중남미(2.6억)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38.7%, 21.8% 차지
 - 광업 총투자액 대비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5.5%, '11년 16.7%, '12년 29.6%, '13년 2/4분기 40.2%, '13년 3/4분기 25.3%
 - 광업 총투자액 대비 중남미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11.7%, '11년 4.2%, '12년 7.0%, '13년 2/4분기 17.5%, '13년 3/4분기 10.0%
- 신규법인수 비중(0.7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19.0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(242.3백만 달러)가 업종 평균 대비 큼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9.4억 달러) 투자비중이 77.5%, 금속 광업(2.4억 달러)이 19.8% 차지

3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6.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.0% 감소, 신규법인수는 20.0% 증가한 18개 기록
- 지역별로는 아시아(2.5억 달러), 유럽(1.6억 달러), 대양주(1.3억 달러) 순이며 투자비중은 각각 37.0%, 24.4%, 19.5%
- 세부업종별로는 금융업(5.6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(0.9억 달러) 순임

4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4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3.0% 감소, 신규법인수는 24.3% 증가한 46개 기록
- 지역별로는 유럽(2.8억 달러), 아시아(0.8억 달러), 북미(0.5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국가별로는 벨기에(1.4억 달러, 비중 35.7%), 네덜란드(1.3억 달러, 비중 33.1%), 미국(0.5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- 금분기 중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9.4% 감소로 비중이 84.8%에서 82.9%로 감소, 반대로 중소기업 투자는 15.1% 증가하여 비중이 12.1%에서 15.0%로 확대
- 대기업의 신규법인수 비중은 14.5%에 불과하나, 신규법인수 대비 투자금액은 대기업(0.5억 달러)이 중소기업(2.7백만 달러) 대비 약 18.5배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11		2012		2013		2012. 4/4		2013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22,840	420	21,162	387	19,035	410	5,833	85	5,287	108
(비중)	82.8%	15.2%	84.2%	15.4%	79.1%	14.8%	84.8%	14.0%	82.9%	14.5%
(증가율)	10.1%	-1.2%	-7.3%	-7.9%	-10.1%	5.9%	-11.8%	-26.1%	-9.4%	27.1%
중소기업	3,760	1,239	3,322	1,093	4,583	1,337	832	262	957	361
(비중)	13.6%	44.9%	13.2%	43.4%	19.1%	48.2%	12.1%	43.1%	15.0%	48.4%
(증가율)	14.7%	-4.3%	-11.6%	-11.8%	37.9%	22.3%	3.9%	-4.7%	15.1%	37.8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1. 대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23.0억 달러, 비중 43.6%), 광업(12.0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5.4억 달러) 순
 -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26.5%, '11년 30.2%, '12년 28.7%, '13년 2/4분기 43.1%, '13년 3/4분기 36.0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27.2억 달러), 유럽(9.3억 달러), 대양주(5.6억 달러) 순

2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4.0억 달러, 비중 41.7%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2.6억 달러, 비중 27.0%) 순
 - 중소기업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비중 : '10년 10.0%, '11년 13.6%, '12년 14.9%, '13년 2/4분기 13.6%, '13년 3/4분기 43.3%
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48.7%, '11년 51.7%, '12년 47.4%, '13년 2/4분기 39.2%, '13년 3/4분기 35.8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5.1억 달러), 북미(2.3억 달러) 순

V. 기 타

1. 투자규모별

<표 5>

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3		2012. 4/4		2013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561	2,084	525	1,925	530	2,106	189	498	193	600
~200만달러 이하	999	352	980	323	1,021	349	348	65	387	81
~500만달러 이하	1,307	129	1,279	108	1,495	158	514	18	479	36
~1000만달러 이하	1,429	70	1,679	66	1,261	53	422	4	418	9
~5000만달러 이하	5,180	82	4,774	71	5,450	80	1,830	19	1,770	14
~1억달러 이하	3,614	15	3,083	10	3,055	16	649	2	926	5
1억달러 초과	14,501	25	12,799	18	11,241	14	2,929	2	2,207	1

- 건당 투자규모 1천만 달러 초과~1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36.0%에서 금분기 42.3%로 증가, 1억 달러 초과 투자 비중은 42.6%에서 34.6%로 감소

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 100%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 73.3%에서 금분기 66.1%로 감소

<표 6>

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3		2012. 4/4		2013. 4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192	14	232	11	168	12	44	2	39	3
10% ~ 50% 미만	3,366	369	2,487	280	2,995	330	667	69	883	94
50%	607	97	683	96	584	86	241	16	233	24
50% 초과~ 100% 미만	3,783	237	3,156	211	3,398	240	887	54	1,006	61
100%	19,643	2,040	18,561	1,923	16,908	2,108	5,042	467	4,218	564